

[03~04]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선생님: 민철이 드디어 왔구나, 오늘 왜 이렇게 늦었니? 너 석..... 이마에 온통 땀이..... ㉠운동장을 거쳐서 계단까지 급히 올라오느라고 힘들었겠구나.
 민철: 죄송합니다. ○○ 학교 앞이라고 써 있어서, 오는 버스를 무작정 탔더니 여기저기로 빙빙 돌아서 오더라고요.
 선생님: 그렇구나..... 버스 안에서 발을 동동 굴렀겠구나.
 민철: ㉡네? 버스에서 발을 동동요?
 선생님: 이 녀석아. 매우 초조했겠다는 말이야..... 그건 그렇고, 네가 집에서 조금 일찍 나와서 천천히 버스 노선을 잘 살펴보았으면 버스를 잘못 타는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민철: ㉢(고개를 끄덕이며) 네, 선생님. 선생님께서 학기 초에 저희한테 하신 말씀대로 일찍 일어나서 서둘렀으면 지각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큰 소리로) 옳거니..... 우리 민철이가 정확하게 알고 있네. 그러면 민철이가 앞으로 지각하지 않으려 면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
 민철: 사실 제가 오늘 좀 늦게 일어나서 허둥지둥 집을 나섰거든요. 내일부터는 어머니께 일찍 깨워 달라고 해서 지각하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민철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한데.....
 민철: 네? ㉤아하, 알겠습니다. 제 시간에 일찍 자고, 알람도 맞추어 놓을게요.
 선생님: 혼자 힘으로 노력해 보겠다니 벌써부터 기대되는 걸. ㉥우리 민철이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지각 안 하고 제 시간에 오면 '이달의 노력상'을 줄 생각인데 어떠니?
 민철: 정말이요? 선생님, 꼭 노력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반 학생들을 향하여) 애들아, 너희들 생각은 어때니?
 학생들: 네, 좋아요.
 선생님: 민철아, 우리 함께 노력해 보자꾸나.

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

- ① ㉠: 상대방의 공간의 이동 상황을 언급하며 대화를 전개하고 있다.
- ② ㉡: 말하는 이의 전문성이 들은 내용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
- ③ ㉢: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상대방의 말에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목소리의 세기를 변화시켜 상대방이 자신의 의도를 알아차린 데 대해 호응하고 있다.
- ⑤ ㉤: 일정한 보상을 제시하여 실천에 대한 상대방의 다짐을 유도해 내고 있다.

4. 선생님의 의도를 고려하여 ㉠의 대화를 재구성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4)

- ① 다시는 지각하지 않겠다고 여러 친구들 앞에서 약속 하라는 말씀이지요?
- ② 어머니와 좀 더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지요?
- ③ 한 달 동안만이라도 지각을 하지 않도록 구체적 방법을 모색해 보라는 말씀이지요?
- ④ 학교로 오는 버스 노선에 관한 정보를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으라는 말씀이지요?
- ⑤ 어머니의 도움보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 보라는 말씀이지요?

5. 다음은 수행 평가를 준비하는 학생의 발표 연습이고, <보기>는 이를 듣고 난 후 친구들의 반응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발표자에게 조언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

발표자: 억새와 갈대는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둘 다 몇과에 속한 여러해살이풀로, 겉모습은 물론이고 꽃이 피고 지는 시기까지 비슷해 헷갈리기 십상이죠. 억새는 줄기와 잎이 은색이나 흰색이고, 꽃도 은빛이나 흰빛을 띠면서 곱고 깨끗합니다. 갈대와 비교하면 줄기가 가는 편이고, 잎이 줄기를 감싸며 자라기 때문에 마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갈대는 고동색이나 갈색을 띠고 마디가 보입니다. 줄기가 뾰뚱해서 강한 바람에도 꺾꽂하게 견딥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억새와 갈대의 가장 큰 차이는 뿌리에 있습니다. 억새는 곧고 짧은 뿌리가 포기 나누기를 하는 것처럼 증식하기 때문에 가까이서 보면 대과 다발처럼 보이고, 갈대는 뿌리 줄기에 마디가 있고 그 마디에 수염뿌리가 많이 나고 거기서 줄기가 다시 올라옵니다. 어때요? 이제 억새와 갈대를 구별할 수 있겠죠?

— < 보 기 > —

학생 1: 흥미로운 내용이어서 잘 들긴 했는데....., 이렇게 말만 듣고 억새와 갈대를 실제로 잘 구별해 낼 수 있을까?
 학생 2: 나도 재미는 있었는데....., 사실 난 억새와 갈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몰라. 대나무처럼 생긴 건가?

- ① 청자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어.
- ②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표 내용을 요약·정리한 유인물을 사전에 제공할 필요가 있어.
- ③ 청자가 발표 내용을 명확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좋겠어.
- ④ 청자의 반응을 고려해 볼 때, 도입부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이야기를 삽입하는 것이 좋겠어.
- ⑤ 청자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발표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추가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어.

[06~07] 신문반 동아리 활동 시간에 <조건>에 맞게 글을 재작성하는 작문 과제를 수행하였다.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된 신문 사설

정부가 한 달간 계속된 ○○○ 항공 조종사 파업에 대해 긴급 조정권을 발동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긴급 조정은 노사가 현안을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정부에 의해 강제로 분규를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선책이다. 하지만 이 파업에 따른 피해가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로 확산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 ○○○ 항공 조종사들은 유가가 급등하여 다른 국제 항공사들이 모두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는데도 파업을 시작했다. 이로 인해 ○○○ 항공은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크게 떨어졌다. 게다가 주요 수출 화물 운송에 차질이 생기고 항공사의 국제 경쟁력 또한 약화되었다. 가뜰이나 생활고에 지친 국민과 장기 불황에 빠진 국민 경제를 생각하지 않는 ○○○ 항공 조종사들이 사리에 맞게 판단하기를 기대한다.



선생님 : 아래의 조건에 따라 글을 쓰는 과제를 수행 하려고 해요. 이를 통해 신문 사설을 어떻게 수용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조건>

- ㄱ.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하여 내용을 작성할 것.
- ㄴ. 상황의 심각성이 실제보다 과장되는 측면을 지적할 것.
- ㄷ. 전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용적인 표현을 활용할 것.
- ㄹ. 설득 대상을 바꾸어 설정한 후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것.
- ㅁ.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기대 효과를 명시할 것.



재작성한 글

현재 ○○○ 항공 조종사 파업에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결정이다. 긴급 조정권 발동은 법적으로 '공익사업의 쟁의 행위가 규모가 크고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현재 ○○○ 항공 조종사 파업이 과연 국민 경제를 심각하게 해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파업 장기화로 국제 신인도의 추락, 심각한 수출 화물 운송 차질 등을 내세웠지만 국제선 결항률은 10% 미만에 불과하고 수출 화물의 운송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정부가 경제적 피해를 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개입은 결국 사용자 쪽에 힘을 실어 주어 자율적 노사 합의로 가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다. 또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계속 개입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수 있다. 파업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시각이 자율 타결을 어렵게 한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보아야 한다.

6. ㄱ~ㅁ 중 재작성한 글 속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6)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7. 작문 과제를 제시한 선생님의 의도를 가장 잘 파악한 것은?7)

- ① 사실은 신문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글이므로 공신력 있는 신문을 선택해야겠군.
- ② 글쓴이에 따라 사건을 달리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며 사설을 읽어야겠군.
- ③ 사실은 사실에 근거해 작성한 글이므로 글쓴이의 의견에 초점을 맞추어 읽어야겠군.
- ④ 사설을 쓰는 사람에 따라 사건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누가 썼는지를 먼저 알아야겠군.
- ⑤ 사건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관점에 잘 부합하는 사실을 찾아 읽어야겠군.

8. 다음 칼럼을 읽고 <조건>에 따라 표어를 쓰기 위해 구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8)

노약자석에 노약자가 없다

전동차마다 노약자를 위한 자리가 있다. 그러나 거기에 노약자가 앉아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노약자석'이란 팻말 밑에 튼튼한 젊은이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앉아 있고 노약자가 그 앞에서 있어도 그 당당한 선취권을 끝까지 양보하지 않는다. 혹시 '노약자'란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까 해석한 시민운동 단체가 '여러분도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라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붙여 놓았는데도 그 뜻을 아는 젊은이들은 많지 않다.

<조건>

- 예상 독자를 젊은 사람들로 할 것.
- 비유법과 청유형을 활용할 것.
- 칼럼의 취지를 반영할 것.

- ① 노약자석에 앉은 젊은 당신, 당신은 이미 노인입니다.
- ② 양보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자리를 약한 젊은이들에게 양보합시다.
- ③ 노인은 몸이 나약하신 분입니다. 집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하세요.
- ④ 젊은 당신이 앉은 노약자석은 바늘방석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 편하게 서서 감시다.
- 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젊은이 못지않은 당신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9. 다음의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9)

오늘날 우리 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냄새는 온통 인공의 향으로 가득하다. 생선 구운 냄새를 없애기 위해 탈취제를 뿌리고 화장실에는 방향제를 ㉠배치한다. 나쁘다고 여기는 ㉡냄새는 없고 그 자리를 다른 냄새로 채운다. 비누, 샴푸, 세제, 치약 등의 ㉢생활필수품에서는 향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이 거의 없으며 사람들은 이 냄새들을 깨끗하고 상쾌한 냄새로 여긴다. ㉣냄새를 잘 구별하고 기억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좋은 직장을 구하기도 한다. 자연의 다양한 냄새 대신 플로랄 향, 아쿠아 향 등 인공 향에 길들여진 우리는 과일 냄새마저도 실제 과일의 냄새가 아닌 인공의 딸기 향, 포도 향에 더 익숙하다. ㉤오히려 인공 향이 가득한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후맹*'이 되어 가고 있다.

*후맹 - 콧속에 있는 후각 세포가 망가져 냄새를 잘 맡지 못함. 또는 그런 사람.

- ① ㉠은 의미상 잘못된 어휘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치한다'로 고친다.
- ② ㉡은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어색하므로 '냄새는 없애 버리고'로 고친다.
- ③ ㉢은 뒤의 문장과 호응이 어색하므로 '생활필수품에는'으로 고친다.
- ④ ㉣은 전체 내용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삭제한다.
- ⑤ ㉤은 앞뒤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어주지 못하므로 '하지만'으로 고친다.

10. 다음은 '제1회 학생 연합 축제'에 대한 식사문이다.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활용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0)

안녕하십니까. 학생 연합 회장 ○○○입니다.
 오늘 이렇게 학생 연합 축제의 막을 올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물심양면으로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 축제는 저희들 스스로 새로운 청소년 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소중한 행사이면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표현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높이기 위한 각종 노력의 결과들이 공연과 놀이, 전시 등으로 다양하게 펼쳐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세대를 초월하는 공감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우 여러분! 꽃 박람회 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곳에는 다양한 환경에서 자란 수많은 꽃 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꽃들마다 고 유한 빛깔과 향기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또한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이 축제를 준비해 왔고, 각각의 색깔과 향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축제를 통해 그것을 마음껏 뽐내었으면 합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훈훈한 열기로 이 자리를 채워 주신 오늘의 주인공인 학우 여러분과 축제를 도와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① 행사의 목적과 의의를 밝힌다.
- ② 상황을 고려하여 격식을 갖춘 말투를 사용한다.
- ③ 독자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 ④ 글의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적절한 수사법을 사용한다.
- ⑤ 행사가 열리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제시한다.

11. <보기>의 ㉠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닌 것은?11)

< 보 기 >

부사 중에는 특정한 의미를 강조하는 단어가 있다. 특히 문장에서 ㉠'정도'의 의미를 담은 단어는 화자의 생각을 나타내거나 강조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한다.

- ① 저 사람 요즘 말이 꽤 많아졌지?
- ② 오랜 기간 신어서 신발이 다 닳았다.
- ③ 고구마가 덜 익어서 씹기에는 딱딱하구나.
- ④ 문을 열고 막나가려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다.
- ⑤ 오늘 칭찬을 받아서 그런지 기분이 꽤 좋아 보인다.

12. <보기>의 ㉠의 예로 적절한 것은?12)

< 보 기 >

형태소는 일정한 뜻을 가진 말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형태소 가운데는 다른 말의 도움 없이 혼자 쓰일 수 있는 형태소도 있고, 반드시 다른 말에 기대어서만 쓰일 수 있는 형태소도 있다. 즉, ㉠자립 형태소는 앞뒤에 다른 형태소가 직접 연결되지 않아도 문장에서 쓰일 수 있지만, 의존 형태소는 앞이나 뒤에 적어도 하나의 형태소가 연결되어야만 문장에서 쓰일 수 있다.

- ① 가을바람이 할아버지의 모자를 훔쳐 가 버렸다.
- ② 나무는 늘 그 자리에서 불평 없이 자라고 있다.
- ③ 누나가 들려주는 피아노 소리는 정말 아름답다.
- ④ 간밤의 폭설로 온 세상이 새하얗게 물들어 버렸다.
- ⑤ 아빠의 손을 잡고 걷는 밤길은 하나도 무섭지 않다.

13.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를 이해한다고 할 때, ㉠과 ㉡에 적용되는 음운의 변동 현상으로 적절한 것은? 13)

— < 보 기 1 > —

- 된소리되기: 예사소리(평음)가 된소리(경음)로 바뀌는 현상.
- 유음화: 유음이 아닌 자음이 유음의 영향을 받아 유음 'ㄹ'로 동화되는 현상.
- 자음군 단순화: 음절 말의 겹받침 가운데 하나가 탈락하고 하나만 발음되는 현상.
- 비음화: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 비음 'ㄴ, ㄹ, ㅇ'으로 동화되는 현상.
- 구개음화: 'ㅣ' 또는 반모음 'y'로 시작하는 의존 형태소 앞에서 'ㄷ, ㅌ'이 구개음 'ㄷ, ㅌ'이 되는 현상.
-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이 일곱 자음 중 하나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 < 보 기 2 > —

날날이 → [날 : 나치] → [날 : 나치]

㉠ ㉡

	㉠	㉡
①	된소리되기, 구개음화	비음화
②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구개음화	비음화
③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자음군 단순화
④	자음군 단순화, 유음화	구개음화
⑤	유음화, 된소리되기	음절의 끝소리 규칙

14. <보기>는 '논문 표절로 얼룩진 연구 윤리와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주제로 쓴 '학술 칼럼'의 결론 부분이다. <보기>가 지닌 문제점에 대한 지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4)

— < 보 기 > —

무엇보다 연구 윤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초등 교육 과정부터 고등 교육 과정까지 연구 윤리 교육에 대한 항목을 추가한 후, 연구 윤리 의식을 갖춘 사회 구성원을 체계적으로 길러 낼 필요가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얻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총체적인 난국에 처해 있는 연구 윤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교육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나가야 할 것이다.

- ① 주제와 무관한 내용으로 인해 통일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군.
- ②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내용의 의미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군.
- ③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접속 표현을 사용하여 응집성을 떨어뜨리고 있군.
- ④ 개인적인 경험을 지나치게 일반화하여 논리적인 모순을 초래하고 있군.
- ⑤ 인용한 부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어 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군.

15.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의 문장 성분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

— < 보 기 1 > —

문장을 이루는 요소인 문장 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처럼 문장을 이루는 데 골격이 되는 주성분이 있고, 관형어, 부사어와 같이 주성분의 내용을 수식하는 부속 성분, 그리고 독립어처럼 다른 성분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독립 성분이 있다.

— < 보 기 2 > —

- ㄱ. 아버지께서 주무신다.
- ㄴ. 그녀는 학자가 되었다.
- ㄷ. 아야, 이가 너무 아프다.
- ㄹ. 삼촌이 새 자동차를 샀다.
- ㅁ. 그는 설익은 밥을 재빨리 먹었다.

- ① ㄱ과 ㄴ은 주성분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 ② ㄷ은 독립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다.
- ③ ㄹ과 ㅁ은 주성분인 목적어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다.
- ④ ㄷ과 ㄹ은 주성분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동일한 문장이다.
- ⑤ ㅁ은 ㄷ, ㄹ에서 부속 성분으로 사용된 문장 성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다.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뉴욕 현대미술관에 있는 '모로코 사람들'은 마티스의 동방적(oriental) 주제에 대한 동경과 동방의 미술 전통 속에서 확인한 장식적·평면적인 것에 대한 추구가 교차하면서 탄생했다. 제목이 암시하듯 이 그림은 1911년과 1912년에 이루어진 모로코 여행의 추억에서 구상되었다. 여행 중이거나 그 직후에 그려진 작품과는 달리 이미 4~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그려진 이 작품에서, 모로코의 추억은 마티스의 머릿속에서 조형적으로 소화되어 거의 추상적 형태에 가까울 정도로 단순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 그림에 그려진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두고 온갖 논의가 벌어졌다.



화면의 왼편 위쪽에 그려진 회색의 형태가 테라스에서 본 이슬람 사원이고, 테라스의 난간 한쪽 끝머리에 있는 파란색 바탕에 하얀 줄무늬가 있는 네 개의 원이 남국의 어떤 식물을 나타내는 것 같다는 데에는 모두 이의가 없다. 그러나 그 아래 ㉠ 흰 선의 격자 위에 황색의 원과

녹색의 형태가 그려져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 미술사학자는 이것을 모로코 사람들이 타일을 깔 바닥 위에 이마를 붙이고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 황색의 원은 터번을 두른 아랍인의 머리가 되고, 녹색의 형태는 아랍 특유의 민소매 긴 옷이 된다. 반면에 다른 비평가는 ‘기도하는 모로코 사람들’을 ‘푸른 잎사귀에 싸인 네 개의 멜론’으로 해석한다.

각각의 모티프가 멜론인지 모로코 사람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애초에 마티스의 마음속에는 아마 명확한 이미지가 있었을 터이지만, 완성된 작품에서 그것은 추상적으로 승화되었다. ㉡ 황색의 원형은 오른쪽에 등을 돌리고 앉아 있는 인물의 머리와 호응하고, 나아가 뒤편의 파란 꽃과 이슬람 사원의 둥근 지붕과 어우러지면서 화면에 부드러운 리듬을 자아내고 있다. 이 원은 멜론이나 아랍 사람의 머리이기에 앞서 화면의 구성 요소가 되는 기하학적 형태이다.

위에서 언급한 황색과 녹색 외에 ㉢ 화면 오른쪽 아래쪽의 장방형에는 청색이, 바탕에는 옅은 보라색이 각각 칠해져 있다. 한편 화면 왼편에는 화분에 핀 꽃의 청색과 건물의 회색, 그리고 전체의 바탕에 깔린 검정색이 등장한다. 색 그 자체는 화려하다거나 다양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화면에서는 분명히 남국의 창을 생각나게 하는 밝음이 느껴진다. 야수파 시기의 격렬한 색채의 혁명을 거친 마티스는 화면의 밝음, 풍부함이라는 것은 결코 튜브에 들어 있는 물감 색의 생생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훗날 그는 “하나의 색은 단순한 물감에 불과하다. 두 개의 색이야말로 화음이요, 생명이다.”라고 말했다. 마티스에게 색채의 비밀은 무엇보다도 그 조화와 울림에 있었던 것이다. ‘모로코 사람들’에서 전체의 배경이 되는 검정색은 어두운 느낌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남국의 투명한 밝음을 느끼게 해 준다. 마티스 자신도 이 검정을 가리켜 ‘빛의 색’이라고 했는데, 본래 어둠의 색인 검정을 ‘빛의 색’으로 변모시킨 것에 ㉣ 색채의 마술사 마티스의 비밀이 있다. ㉤ ‘모로코 사람들’은 마티스의 그런 놀라운 표현력을 보여 주는 걸작이다.

16. ‘모로코 사람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16)

- ① 마티스는 이 그림에서 야수파 시기의 격렬하고 화려한 색채를 사용했다.
- ② 모로코 여행 직후에 그려진 이 그림은 모로코의 풍광을 사실적으로 그려 냈다.
- ③ 마티스에 대한 전문가들은 이 그림의 특정 모티프에 대해 각기 다르게 해석한다.
- ④ 이 그림이 밝게 보이는 주된 이유는 화가가 즐겨 사용하는 물감의 생생함 때문이다.
- ⑤ 황색의 원과 녹색의 형태에 대한 분명한 규명과 해석이 이 그림 이해에 중요한 요소이다.

17. <보기>에 제시된 미술 비평 단계에 대한 설명을 토대로 ㉠~㉤의 성격을 판단해 보았다. 가장 적절한 것은? 17)

<보 기>

일반적으로 미술 비평은 기술과 분석, 해석, 평가의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기술과 분석의 단계에서는 작품 속에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실(소재)들의 목록이 작성되고, 그들의 관계에 대한 정리 작업이 이루어진다. 해석의 단계는 전 단계에서 모은 자료를 활용하여 작품의 주제나 의미를 파악한다. 평가 단계에서는 선행 단계의 작업 결과를 토대로 작품의 가치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다.

	기술과 분석	해석	평가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18. ㉣가 내포하는 의미를 가장 잘 파악한 것은? 18)

- ①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물감 혼합법을 사용했다.
- ② 검정색만으로 화면에 신비스러운 효과를 연출했다.
- ③ 검정색과 흰색을 대비시켜 남국의 밝음을 표현했다.
- ④ 검정색이 주위 색과의 조화를 통해 밝은 느낌을 주었다.
- ⑤ 어둠의 색인 검정색이 흰색과의 혼합으로 ‘빛의 색’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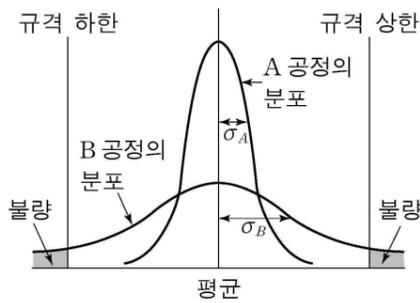
19. 마티스의 문하생이 ‘모로코 사람들’에 나타난 회화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할 때, 그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19)

- ① 이슬람 사원과 기도를 올리는 사람들을 마치 사진처럼 세밀하게 그렸다.
- ② 보기 좋게 배치된 멜론을 분명한 윤곽선과 멜론 고유의 노란색을 이용해 그렸다.
- ③ 연속된 동심원의 형태와 수수한 색채를 통해 화사한 봄별의 느낌을 울동감 있게 그렸다.
- ④ 아름다운 선율과 화음으로 그를 감동시킨 음악가의 초상화를 그리되, 악보를 그려 나가는 그의 손을 강조해 그렸다.
- ⑤ 인류에게 조화로운 삶을 강조했던 성인(聖人)의 일화를 안정된 삼각형 구도 속에서 차분한 색채와 웅장한 형태를 통해 감동적으로 그렸다.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느 공장에서 길이가 7미터인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자. 이때 가장 이상적인 제품의 길이는 7미터이다. 하지만 아무리 공정이 안정되고 설비가 우수하다 하더라도 생산된 모든 제품의 길이가 하나같이 7미터가 되게 하는 것은 ㉠ 어렵고, 7미터를 중심으로 약간씩 오차를 갖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제품의 품질 특성값은 평균을 중심으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특성값이 평균에서 멀리 떨어진 제품일수록 생산될 가능성은 점차 줄어든다. 여기서 품질 특성값들이 그 평균에서 떨어져 흩어져 있는 정도를 산포도라고 하며, 산포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표준 편차를 이용한다. 시그마(σ)는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기호로 그 값이 작다는 것은 평균을 중심으로 품질 특성값이 덜 흩어져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곧 생산된 제품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균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제품에는 나름대로의 규격이 있는데 이 규격은 일반적으로 규격 하한과 규격 상한으로 주어진다. 규격을 벗어나는 제품은 모두 불량품이 된다. 왼편의 그림처럼 두 공정 A, B에서 생산된 제품들의 품질 특성값 평균이 규격 하한과



규격 상한의 중간인 목표값에 모두 일치하였다고 가정하자. A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은 산포도가 작아서 규격을 벗어나는 것이 거의 없으나, ㉡ B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은 산포도가 커서 규격을 벗어나는 불량품이 발생하고 있다. 평균에서 규격 하한 혹은 규격 상한까지의 거리를 시그마의 배수로 표현할 때, A 공정은 시그마가 작아 그 배수가 큰 반면, B 공정은 시그마가 커서 A 공정에 비해 그 배수는 작다. 이와 같이 평균에서 규격 하한 혹은 규격 상한까지의 거리가 시그마의 몇 배가 되느냐에 따라 불량률이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한 회사가 천명한 6 시그마 품질 향상 계획은 기본적으로 규격 하한과 규격 상한이 제품의 규격 평균으로부터 각각 6 시그마의 거리에 위치하도록 공정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수준은 10억 개 중에서 2개만이 불량인 것으로 거의 무결점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기계나 원자재의 특성, 작업 환경 등의 원인에 의하여 품질 특성값의 평균이 목표값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대략 ± 1.5 시그마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6 시그마 수준이 성취되면 불량률은 100만 개 중에서 3.4개 이하로 관리될 수 있게 된다. 이 수치도 충분히 작은 값이기 때문에 6 시그마 수준은 새로운 품질 기준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계적 개념인 6 시그마를 조직이 도달해야 하는 품질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최근에 널리 보급되고 있는 6 시그마 경영의 출발점이다. 6 시그마는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6 시그마 경영은 아주 적은 불량에 대해서도 그것의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활동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특정한 공정을 바꾸는 것처럼 ㉢ 부분적인 처방보다는 주로 시스템 자체를 개선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데, 필요하다면 6 시그마 수준

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도록 아예 시스템 전체를 새로 설계하기도 한다. 6 시그마를 도입한 세계적인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품질 문제로 야기되는 비용이 감소하였으며,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이 개선되었고, 고객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20. 위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없는 것은? 20)

- ① 품질 관리의 기술은 통계적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 ② 공정의 목표값과 품질 특성값의 평균은 서로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 ③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불량률이 적은 우수한 공정으로 판정하게 된다.
- ④ 6 시그마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⑤ 평균에서 규격 상한까지의 거리가 표준 편차의 6배이면 공정은 6 시그마 상태에 있다.

21. ㉠과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21)

- ① 요즘 그가 바빠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
- ② 그 사람은 까다로워 대하기가 어렵다.
- ③ 선생님의 소설은 모두들 어렵다고 합니다.
- ④ 어려운 살림에 너무 무리하지 않았나 합니다.
- ⑤ 그는 가난과 외로움으로 청소년기를 어렵게 보냈다.

22. <보기>의 과정을 통해 품질 개선을 한다고 했을 때, ㉡, ㉢의 정보가 생성되는 단계는? 22)

<보 기>

가. 정의 단계: 중요한 품질 특성들 가운데 개선 대상을 선정한다.
 나. 측정 단계: 측정 방법을 결정하여 현재 품질의 상태를 측정한다.
 다. 분석 단계: 현재 품질의 상태와 그 영향 요인 간의 인과 관계를 파악한다.
 라. 개선 단계: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과 조건을 찾는다.
 마. 통제 단계: 개선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 | | |
|---|---|---|
| | ㉡ | ㉢ |
| ① | 가 | 나 |
| ② | 가 | 라 |
| ③ | 나 | 다 |
| ④ | 나 | 라 |
| ⑤ | 나 | 마 |

23.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강연을 할 때, 강사가 <보기>의 자료를 가지고 설명할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23)

<보 기>

시그마 수준	면적	비용	시간	거리
3 시그마	동네 슈퍼마켓	270만 원의 부채 10억 원의 자산	3.5개월 100년	미국 대륙 횡단 거리
4 시그마	가정집 거실	63,000원의 부채 10억 원의 자산	2.5일 100년	고속도로 45분 거리
5 시그마	공중전화 박스	570원의 부채 10억 원의 자산	30분 100년	가까운 주유소까지의 거리
6 시그마	다이아몬드 반지 알	2원의 부채 10억 원의 자산	6초 100년	네 걸음

- ① 시그마 수준에 따른 규격의 변화
- ② 시그마 수준에 따른 불량률의 크기
- ③ 시그마 수준을 구현하기에 적합한 장소
- ④ 시그마 수준의 차이에 따른 공정의 분류
- ⑤ 시그마 수준을 높이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도덕적 선택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상대방에게 개인적 선호(選好)를 드러내는 행동이 과연 도덕적으로 정당할까? 도덕 철학자들은 이 물음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 반응을 보이며 도덕적 정당화의 조건으로 공평성(impartiality)을 제시한다. 공평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특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들은 인종,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신체와 생명, 복지와 행복에 있어서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어떤 개인에 대해 행위자의 선호를 표현하는 도덕적 선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공평주의자들은 사람들 간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가에 따라 행동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특정 개인과 특별한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간다. 상대가 가족인 경우는 개인적 인간관계의 친밀성과 중요성이 매우 강하다. 가족 관계라 하여 상대에게 ㉠ 특별한 개인적 선호를 표현하는 행동이 과연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 만약 허용된다면 어느 선까지 가능할까? 다음 두 경우를 생각해 보자.

철수는 근무 중 본부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았다. 동해안 어떤 항구에서 혐의자 한 명이 일본으로 밀항을 기도한다는 첩보가 있으니 그를 체포하라는 것이었다. 철수가 잠복 끝에 혐의자를 체포했더니, 그는 하나밖에 없는 친형이었다. 철수는 고민 끝에 형을 놓아주고 본부에는 혐의자를 놓쳤다고 보고했다.

민수는 두 사람에게 각각 오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한 명은 삼촌이고 다른 한 명은 사업상 알게 된 영수였다.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오천만 원이 급히 필요하게 되었고, 그보다 적은 돈은 그들에

게 도움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를 알게 된 민수는 노력한 끝에 오천만 원을 마련하였고, 둘 중 한 명에게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다. 민수는 삼촌의 빚을 갚았다.

철수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 혐의자가 자신의 형임을 알고 놓아주었으므로 그의 행동은 형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그는 모든 사람의 복지와 행복을 동일하게 간주해야 하는 공평성의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그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민수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는 분명히 삼촌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표현했다. 민수가 공평주의자라면 삼촌과 영수의 행복이 동일하기 때문에 오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만약 영수가 더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고 삼촌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영수의 빚을 갚아야 한다. 그러나 삼촌과 영수가 처한 상황이 정확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민수에게는 개인적 선호가 허용된다.

강경한 공평주의자들은 이런 순간에도 주사위를 던져서 누구의 빚을 갚을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개인적 선호를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이다. 반면 ㉢ 온건한 공평주의자들은 이러한 주장이 개인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선호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할 여지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여지가 개인적 선호의 허용범위라는 것이다. 그들은 상황적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하여 개인적 선호를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4. ㉡의 추론 과정에 생략되어 있는 전제는?24)

- ① 철수가 형을 놓아주었다면 그는 누구라도 놓아줄 수 있을 것이다.
- ② 철수가 체포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철수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을 것이다.
- ③ 철수가 놓아준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철수는 거짓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 ④ 철수가 공평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개인적 선호를 표현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 ⑤ 철수가 형을 놓아주지 않았다면 그는 비인간적인 사람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25.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보기>의 ‘순이’가 ㉣이라고 할 때, ‘순이’가 취할 행동과 그 이유로 적절한 것은? 25)

<보 기>

순이는 오늘 외할머니와 친할머니 중 한 분을 하루 동안 간병하기로 했다. 연세가 더 많으신 외할머니께서는 간병할 사람이 있고, 친할머니께서는 간병할 사람이 없다는 것 이외에 두 분이 처한 상황 조건은 완전히 동일하다.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가까웠던 순이는 친할머니보다는 외할머니를 더 좋아한다.

- ① 두 분 다 소중하므로 누구를 도와도 상관없다.
- ② 외할머니를 더 좋아하므로 외할머니를 돕는다.
- ③ 친할머니께서 더 젊으시므로 친할머니를 돕는다.
- ④ 친할머니를 간병할 사람이 없으므로 친할머니를 돕는다.
- ⑤ 외할머니께서 연세가 더 많으시므로 외할머니를 돕는다.

26. 위 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의 대화를 접하고 보일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6)

<보 기>

A: 효심이 지극한 왕이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사람을 죽였다면, 법의 집행관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B: 당연히 왕의 아버지를 잡아들여야겠지.
 A: 그러면 왕이 그것을 막지 않겠습니까?
 B: 왕이 사사로이 막을 수는 없지. 왕의 직분으로 판단해야 하니까.
 A: 이런 상황에서 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B: 내가 그 왕이라면 왕의 직분을 버리고 아버지와 도망가겠네.

- ① 왕이 아버지의 체포를 허락한다면 그것은 개인적 선호가 작용한 거야.
- ② 집행관이 왕의 아버지를 잡아들인다면 강경한 공평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을 거야.
- ③ 왕이 사사로이 판단하더라도 지위를 버린다면 공평주의자들은 비난하지 않을 거야.
- ④ 강경한 공평주의자들은 왕의 신분도 지키고 아버지도 구하는 길을 찾으려고 할 거야.
- ⑤ 온건한 공평주의자들이 볼 때, 왕이 아버지의 체포를 금지하는 것은 '민수'의 행동과 차이가 없어.

27. 문맥으로 보아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27)

- ① 각별한 ② 고유한 ③ 독특한
- ④ 상이한 ⑤ 특이한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리굽쇠는 굽기가 일정한 금속 사각 막대를 U자형으로 구부리고 아래쪽에 쇠기둥을 ㉠ 단단하게 용접한 것으로, 작은 망치로 때리면 일정한 진동수의 음을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일반적으로 소리굽쇠는 작을수록 높은 음을 낸다. 원래 소리굽쇠는 1711년에 영국의 트럼펫 연주자인 존 쇼어가 악기를 조율할 때 기준음을 내는 도구로 개발한 것이었다. 처음에 사람들은 소리굽쇠가 건반악기의 어떤 음을 낸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초당 몇 회의 진동을 하는지는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리굽쇠로 악기를 조율하였기에 지역마다 연주자마다 악기들은 조금씩 다른 기준음을 가졌다. 소리굽쇠가 정확하게 얼마의 진동수를 갖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정확한 측정 장치가 없는 당시로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처럼 보였다. 이 문제는 독일의 음향학자인 요한 샤이블러에 의해 1834년에 명쾌하게 해결되었다.

샤이블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다른 진동음을 내는 두 개의 소리굽쇠가 만들어 내는 맥놀이 진동수를 세는 방법을 사용했다. 맥놀이란 진동수가 약간 다른 두 개의 소리가 간섭을 일으켜 소리가 주기적으로 ㉡ 세어졌다 ㉢ 약해졌다 하는 현상이다. 서로 다른 진동수를 갖는 두 음이 함께 울릴 때 생기는 맥놀이의 진동수는 두 음의 진동수의 차에 해당한다. 맥놀이 진동수는 초당 4회, 즉 4Hz(헤르츠) 정도일 때 귀로 들으면서 측정하기에 적당하다.

샤이블러의 실험에는 여러 개의 소리굽쇠가 필요했다. 그는 어떤 건반악기의 A 음과 같은 음을 내도록 만든 1번 소리굽쇠와 그것보다 약간 크게 만든 2번 소리굽쇠 사이의 맥놀이 진동수가 4Hz가 되게 하였다. 이것은 1번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가 2번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보다 4Hz만큼 큼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샤이블러는 좀 더 큰 3번 소리굽쇠를 만들어서 2번 소리굽쇠와 함께 울렸을 때 역시 초당 4회의 맥놀이가 일어나도록 조절하였다. 이렇게 해서 3번 소리굽쇠는 1번 소리굽쇠에 비하여 8Hz만큼 낮은 진동수의 음을 내게 되었다. 샤이블러는 이런 방법으로 1번 소리굽쇠보다 정확하게 한 옥타브 낮은 음을 내는 소리굽쇠가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새로운 소리굽쇠를 만들었다. 그랬더니 56번 소리굽쇠가 1번 소리굽쇠보다 정확하게 한 옥타브 낮은 음을 내었다. 샤이블러는 56번 소리굽쇠가 1번 소리굽쇠에 비하여 $4\text{Hz} \times 55$, 즉 220Hz만큼 낮은 진동음을 낸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었다.

한 옥타브만큼 차이 나는 두 음 중 높은 음의 진동수는 낮은 음의 진동수의 두 배가 된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었으므로, 이로부터 샤이블러는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를 계산해 낼 수 있었다. 1번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는 56번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의 두 배이고 그 차이는 220Hz이므로, 1번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는 440Hz, 56번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는 220Hz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에 의지하여 샤이블러는 1834년에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린 과학자들의 회의에서 건반의 A 음을 440Hz로 삼아 음 높이의 기준을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 '슈투트가르트 피치'는 이후 유럽 여러 나라에서 조율의 기준음으로 한 동안 널리 쓰였다.

28. 사이블러의 업적을 바르게 말한 것은? 28)

- ① 맥놀이 현상을 최초로 발견하였다.
- ② 악기의 기준음의 정확한 진동수를 구하였다.
- ③ 음 높이가 높아질수록 진동수도 커짐을 발견했다.
- ④ 악기의 조율에 사용하기 위해 소리굽쇠를 발명했다.
- ⑤ 소리굽쇠를 음향학 연구를 위한 실험 도구로 채택했다.

29.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사이블러가 사용한 1번 소리굽쇠가 200 Hz의 고유 진동수를 갖는다고 할 때, 실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29)

<보 기>

ㄱ. 1번 소리굽쇠보다 한 옥타브 낮은 음을 내는 소리굽쇠는 100 Hz의 고유 진동수를 가질 것이다.

ㄴ. 처음과 마지막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의 차이는 220 Hz 일 것이다.

ㄷ. 이 실험에서 사용해야 하는 소리굽쇠의 개수는 50개일 것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30. ㉠이 도입된 곳에서 일어났을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0)

- ① 악보의 형태가 바뀌었을 것이다.
- ② 음악 애호가들이 증가했을 것이다.
- ③ 낮은 음을 쓰는 곡이 많아졌을 것이다.
- ④ 맥놀이에 대한 실험 연구가 증가했을 것이다.
- ⑤ 음악가들이 표준 소리굽쇠를 요구했을 것이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눈을 가만 감으면 굵이 잦은 풀밭 길이
 개울물 돌돌돌 길섶으로 흘러가고
 백양 숲 사립을 가린 초집들도 보이구요

㉠ 송아지 몰고 오며 바라보던 진달래도
 저녁 노을처럼 산을 둘러 퍼질 것을
 어마씨 그리운 솜씨에 향그러운 꽃지짐

어질고 고운 그들 멧남새도 캐어 오리
 집집 끼니마다 봄을 씹고 사는 마을
 감았던 그 눈을 뜨면 마음 도로 애젓하오

- 김상옥, 「사향(思鄕)」 -

(나)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_____ [A]
 바다 밑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_____

울엄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_____

㉠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_____ [B]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_____

울엄매야 울엄매,
 별밭은 또 그리 멀리 _____ [C]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_____

진주 남강 맑다 해도 _____ [D]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_____

울엄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같이 _____ [E]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_____

- 박재삼, 「추억에서」 -

31. (가)의 시상의 흐름에 맞추어 (나)를 개작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31)

- ①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가 두드러지도록 연을 재배열한다.
- ② 회상 형식이 드러나도록 처음과 끝에 화자의 현재 상황을 부여한다.
- ③ 제재가 병렬적으로 구성되도록 특정한 시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 ④ 점층적인 구성이 되도록 화자의 시선을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동시킨다.
- ⑤ 각 연마다 선경 후정(先景後情)의 방식이 드러나도록 전체 구조를 변화시킨다.

32. <보기>의 관점에서 (가)를 감상할 때, 가장 적절한 반응은?32)

<보 기>

시조는 전통적으로 음악과 관련된 형식을 강조한다. 노래로 불려지지 않는 현대 시조에서도 이러한 형식은 여전히 중요시되어 음수 통제나 율격 구조와 같은 형식적인 제약이 강조되고 있다. 그 결과 시적 감수성을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제 현대 시조는 이러한 형식적 제약을 넘어서 새로운 미학을 개척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① 의미를 압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글자 수를 제한하고 있군.
- ② 이미지의 흐름에 따라 짜임새 있는 의미 구조를 이루고 있군.
- ③ 어절을 규칙적으로 배열하여 율격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군.
- ④ 사투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시의 리듬감을 잘 살리고 있군.
- ⑤ 정서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3장 구조를 지키고 있군.

33. <보기>는 (나)의 시인이 쓴 다른 작품의 일부이다. [A]~[E]에서 <보기>의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은? 33)

<보 기>

새벽 서릿길을 밟으며
어머니는 장사를 나가셨다가
촉촉한 밤이슬에 젖으며
우리들 머리맡으로 돌아오셨다.

- 박재삼, 「어떤 귀로」 -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토번국이 당나라를 침공하니, 양소유가 대원수가 되어 전장에 나간다. 양 원수가 전장에서 잠깐 조는데, 꿈에 동정호(洞庭湖) 용왕의 작은딸 백능파를 만난다. 양 원수가 그녀를 첩으로 삼자, 남해 태자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양 원수와 싸운다. 양 원수는 자기 군대를 지휘하여 싸움에서 이긴다.

홀연 보니 동남쪽에서 붉은 기운과 안개 자욱이 끼며 용궁 사신 행렬의 깃발이 공중에서 날아오며 사자(使者) 내달아 아뢰되,
“동정호 용왕이 원수의 남해 태자 개침과 공주 구하심을

듣고 친히 궁전에서 축하하려 한대 스스로 맡은 땅에서 경계를 넘지 못하는 고로 궁궐에서 잔치를 베풀고 삼가 원수를 청하여 욕되시더라도 잠깐 임하시게 하시고 겸하여 공주를 궁중에 돌아오시게 하시더이다.”

원수 왈,
“내 바야흐로 대군을 거느려 적군과 마주하고 있고 동정호가 여기서 만 리 밖이라 비록 가고자 한들 어이 얻으리오.”

사자 왈,
“이미 수레를 갖추어 여덟 용이 끌고 있으니 만나절만 하면 돌아오리이다.”

하더라.
양 원수 용녀와 더불어 함께 수레를 타니 신령한 바람이 수레바퀴에 불어 공중에 오르니 이미 인간 세상에서 몇 천 리를 떠난 줄 알지 못하되 다만 흰 구름이 세계를 덮은 양을 볼러라. 잠깐 사이 동정호에 다다르니 용왕이 맞아 주인과 손님의 예법과 위용이 자못 엄숙하더라.

왕이 수중 종족을 모으고 큰 잔치를 차려 원수가 싸움 이기고 용녀가 집에 돌아옴을 축하할새, 술이 취하매 온갖 음악을 내니 풍류 질탕하여 인간 세상과 다르더라.

원수 보니 앞뜰 좌우에 일천 장사 칼과 창을 들고 북 치고 나오고 여섯 줄의 미녀가 비단옷을 입고 춤추니 웅장하고 화려하여 자못 봄 직하더라.

용왕더러 묻되,
“이 춤이 인간 세상에서 보지 못한 배라. 아지 못게라, 이 무슨 곡조니이까.”

용왕 왈,
“이 곡조는 용궁에도 옛날에는 없더니 과인의 만딸이 경하강(涇河江) 용왕의 아들에게 시집갔다가 욕을 당하매 유의(柳毅)*가 편지로 전하거늘, 전당강(錢塘江)에 사는 아우가 경하강에 가 싸움해 이기고 여아를 데려오니 궁

[A] 중 사람이 글을 만들어 전당 파진악(錢塘破陣樂)과 귀주 환궁악(貴主還宮樂)이라 하여 이따금 궁중 잔치에 쓰더니, 이제 원수께서 남해 태자를 이기고 부녀 서로 모임이 전일과 방불할새 이 곡조를 내고 이름을 고쳐 원수 파진악(元帥破陣樂)이라 하나이다.”

원수 크게 기뻐 왕께 사뢰되,
“유 선생이 어디 있나니이까. 가히 서로 볼 수 있으리까.”

용왕 왈,
“유이는 지금 영주의 신선 벼슬을 맡고 있으니 마음대로 오지 못하리이다.”

술잔이 아홉 번 도니 원수 왈,
“군중(軍中)에 일이 많으니 한가히 머물지 못하리로소이다.” 용녀와 더불어 훗날을 기약하더라.

용왕이 원수를 궐문 밖에 가 보내더니 원수 문득 눈을 들어 보니 한 뿔 높고 빼어나 다섯 봉이 구름 속에 들었거늘 왕더러 묻되,

“이 뿔 이름을 무엇이라 하나니이까. 이 양소유 천하를 두루 다녔으되 오직 화산(華山)과 이 뿔을 못 보았나이다.” 용왕이 답하여 이르기를,

“원수 이 뿔을 모르시리이다. 이 곧 남악(南嶽) 형산(衡山)이니이다.”
원수 왈,

“어이 하면 저 뵈를 보리이까.”

용왕 왈,

“날이 아직 늦지 아녘으니 잠깐 구경하셔도 군영에 돌아갈 수 있으리이다.”

원수 수레에 오르니 금방 뵈 아래 이르렀더라. 원수 막대를 끌고 돌길을 찾아 가니 일천 바위 다투어 빼어나고 일만 물이 겨워 흐르는 절경이지만, 볼 겨를이 없는지라, 한탄하여 가로 되,

㉠ “어느 날 공적을 이루고 물러나 세상 밖 한가한 사람이 될꼬.”

문득 바람결에 경쇠 소리 들리거늘 절 문이 멀지 않은 줄 알고 좇아 올라가니, 한 절이 있으되 그 규모가 극히 장려하고 노승이 당 위에 앉아 바야흐로 설법하니 눈썹이 길고 눈이 푸르고 골격이 빼어나 세상 사람이 아니더라. 모든 중을 거느리고 당에서 내려와 원수를 맞으며 왈,

“산 속 사람이 귀와 눈이 없어 대원수 오시는 줄 알지 못하여 멀리서 맞지 못했으니 죄를 용서하소서. 원수 이번은 돌아올 때 아니거니와 이미 왔으니, 불전 위에 올라가 예불하소서.”

원수 분향 예배하고 불전 아래로 내리더니 문득 실족하여 엎어져 놀라 깨달으니 몸은 영중(營中)의 높은 의자에 기대고 있고 날은 이미 밝았더라.

원수 장졸을 모으고 문 왈,

“너희들 밤에 무슨 꿈이 있더냐.”

㉡ 모두 답 왈,

“꿈에 원수를 모시고 귀신 병졸과 더불어 싸워 이기고 장수를 생포하였나이다. 이 필연 오랑캐를 멸할 징조로소이다.”

원수 크게 기뻐 자신의 꿈을 이르고 장졸을 거느려 백룡담 위로 가 보니 고기 비늘이 떨어져 가득하고 피 흘러 내가 되 었더라. 원수 잔을 가져오라 하여 먼저 못 물을 떠 마시고 또 병든 군병을 먹이니 즉시 낫거늘, 그제야 군병과 전마를 일시에 먹이니 즐겨하는 소리 우레 같더라. 적병이 듣고 크게 두려워 항복코자 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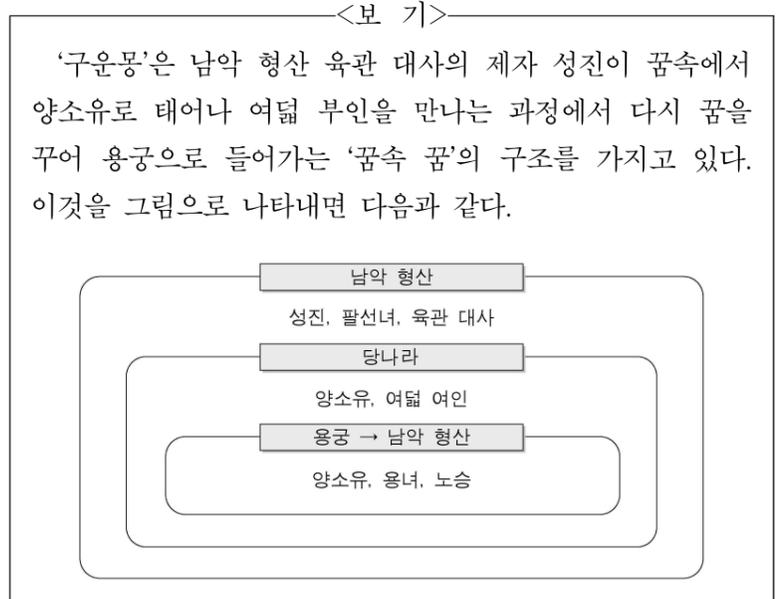
- 김만중, 「구운몽」 -

* 유의: 중국 당나라 소설 '유의전'의 주인공.

3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4)

- ① 장면이 여러 차례 바뀌고 있다.
- ② 주인공의 영웅적 면모가 나타나 있다.
- ③ 공간적 배경이 환상적으로 그려져 있다.
- ④ 격조 있는 표현으로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 ⑤ 하나의 사건을 다양한 시각에서 그리고 있다.

35. <보기>를 참조하여 위 글을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5)



- ① 인물이 활동하는 공간이 현실 층위에 한정되어 실감이 나는 군.
- ② ‘꿈속 꿈’의 공간이 꿈 이전의 현실과 연결된다는 점이 묘미가 있군.
- ③ 꿈과 ‘꿈속 꿈’을 통하여 모든 현실적 욕망에 대해 반성하게 하는군.
- ④ ‘꿈속 꿈’의 공간은 양소유와 여덟 여인이 만나게 되는 배경이 되는군.
- ⑤ 꿈과 ‘꿈속 꿈’의 공간이 단혀 있어서 안정감 있는 공간 의식을 갖게 하는군.

36. [A]는 ‘유의전’의 이야기를 빌려와 쓴 부분이다. ‘구운몽’과의 대응 구조를 표로 나타낼 때, ㉠, ㉡에 알맞은 것은? 36)

	유의전	구운몽
구출자	㉠	양소유
적대자	경하강 용왕의 아들	㉡
구출 대상	동정호 용왕의 만딸	동정호 용왕의 작은딸

- | | |
|--------------|------------|
| ㉠ | ㉡ |
| ① 육관 대사 | 남해 태자 |
| ② 남해 태자 | 동정호 용왕의 아우 |
| ③ 남해 태자 | 동정호 용왕 |
| ④ 동정호 용왕 | 남해 태자 |
| ⑤ 동정호 용왕의 아우 | 남해 태자 |

37. ㉢을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37)

- ①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② 갑론을박(甲論乙駁)하며
- ③ 설왕설래(說往說來)하며 ④ 중구난방(衆口難防)으로
- ⑤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매영(梅影)이 부딪힌 창에 옥인 금차(玉人金釵)* 비겼으니
이삼 백발옹(白髮翁)은 거문고와 노래로다 ————— a
이윽고 잔 잡아 권할 적에 달이 또한 오르더라 —————

빙자옥질(氷姿玉質)이여 눈 속에 네로구나
가만히 향기 놓아 황혼월(黃昏月)을 기약하니
아마도 아치 고절(雅致高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동각에 숨은 꽃이 척축(躑躅)*인가 두견화(杜鵑花)인가
건곤(乾坤)이 눈이어늘 제 어찌 감히 피리
알괘라 백설 양춘(白雪陽春)*은 매화밖에 뉘 있으리
- 안민영, 「매화사」 -

- * 옥인 금차: 미인의 금비녀.
- * 척축: 철쭉.
- * 백설 양춘: 흰 눈이 날리는 음력 정월.

(나)

흰 구름 뿌연 연하(煙霞) 푸른 이는 산람(山嵐)*이라
천암(千巖) 만학(萬壑)을 제 집으로 삼아 두고
나명성 들명성 아양도 떠는구나
오르거니 나리거니 장공(長空)에 떠나거니 광야로
건너거니
푸르락 붉으락 열으락 짙으락
사양(斜陽)과 섞어지어 세우(細雨)조차 뿌리는구나
남여(藍輿)를 재촉해 타고 솔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적에

- ㉠ 녹양(綠楊)에 우는 황앵(黃鶯) 교태 겨워하는구나
나무 사이 우거져서 녹음(綠陰)이 영킨 적에
- ㉡ 백척 난간에 긴 조으름 내어 퍼니
수면(水面) 양풍(涼風)이야 그칠 줄 모르는가
- ㉢ 된서리 빠진 후에 산빛이 금수(錦繡)로다
황운(黃雲)은 또 어찌 만경(萬頃)에 펼쳐진고
- ㉣ 어적(漁笛)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
초목 다 진 후에 강산이 매물켜늘
조물이 현사하여 빙설(氷雪)로 꾸며 내니
경궁요대(瓊宮瑤臺)*와 옥해 은산(玉海銀山)*이 안저(眼底)
에 별였어라
- ㉤ 건곤도 풍성할사 간 데마다 경이로다
- 송순, 「면양정가」 -

- * 산람: 산 속에 생기는 아지랑이 같은 기운.
- * 경궁요대: 옥으로 장식한 궁전과 누대(樓臺).
- * 옥해 은산: 눈 덮인 들판과 산.

38. (가)의 시어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8)

- ① '백발옹'은 매화를 완상하는 주체이다.
- ② '황혼월'은 매화의 비유적 표현이다.
- ③ '아치 고절'은 매화에 부여된 관념적 속성이다.
- ④ '두견화'는 매화와 대조되는 존재이다.
- ⑤ '눈'은 매화의 생명력을 부각시키는 소재이다.

39. 옛 노래를 알리기 위해 (가)와 (나)를 소재로 영상물을 만들려고 한다. 논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9)

- ① (가)는 조출한 술상을, (나)는 가마와 피리를 소품으로 준비해야겠어요.
- ② (가)는 구슬프게, (나)는 은은하게 느껴지는 배경 음악을 사용해야겠어요.
- ③ (가)는 늦겨울이나 초봄을, (나)는 사계절을 계절적 배경으로 설정해야겠어요.
- ④ (가)는 밤을 위주로, (나)는 낮부터 밤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설정해야겠어요.
- ⑤ (가)는 한옥의 뜰을, (나)는 주변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을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해야겠어요.

4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0)

- ① ㉠: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다.
- ② ㉡: 화자의 한가로운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 풍경의 변화를 통해 적막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④ ㉣: 시·청각적 이미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다.
- ⑤ ㉤: 화자의 감회가 집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41~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런데 그 가을의 어느 날이었다. 이미 가끔씩 노환으로 자리보전을 하던 석담 선생은 그날도 병석에서 일어나기 바쁘게 종지와 붓을 찾았다. 그것도 그 무렵에는 거의 쓰지 않던 대필(大筆)과 전지(全紙)였다. 벌써 몇 달째 종지와 붓을 가까이 않던 고죽은 그런 스승의 집착에 까닭 모를 심화를 느끼며 ㉠ 먹을 갈기 바쁘게 스승 곁을 물러나고 말았다. 어딘가 모르게 스승의 과장된 집착에는 제자의 방황을 비웃는 듯한 느낌이 드는 데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동안 뜰을 서성이는 사이에 그는 문득 늙은 스승의 하는 양이 궁금해졌다.

방에 돌아오니 석담 선생은 붓을 연적에 기대 놓고 눈을 감은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바닥에는 방금 쓰다가 그만둔 것인 듯 ‘萬毫齊力(만호제력)’ 녀 자 중에서 앞의 석 자만이 쓰여져 있었다.

“소재(蘇齋)*는 일흔여덟에 참깨 위에 ‘天下泰平(천하태평)’ 녀 자를 썼다고 한다. 나는 아직 일흔도 차지 않았는데 이 녀 자 ‘萬毫齊力’을 단숨에 쓸 힘도 남지 않았으니…….”

그렇게 탄식하는 석담 선생의 얼굴에는 자못 처연한 기색이 떠올랐다. 그러나 고죽은 그 말을 듣자 억눌렀던 심화가 다시 솟아올랐다. 스승의 그 같은 표정은 그에게는 처연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만만함으로 비쳤다.

“설령 이 글을 단숨에 쓰시고, 여기서 금시조(金翅鳥)*가 솟아오르며 향상(香象)*이 노닐듯, 그게 선생님을 위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고죽은 자신도 모르게 심술궂은 미소를 띠며 물었다.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힌 채 기진해 있던 석담 선생은 처음 그 말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이내 그 말의 참뜻을 알아들은 듯 매서운 눈길로 그를 노려보았다.

“무슨 소리냐? 그와 같이 드높은 경지는 글씨를 쓰는 이면 누구든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이르러 보고 싶은 경지다.”

“거기에 이르러 본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고죽도 지지 않았다.

“㉠ 태산에 올라 보지도 않고, 거기에 오르면 그보다 더 높은 산이 없을까를 근심하는구나. 그럼 너는 일찍이 그들이 성취한 드높은 경지로 후세에까지 큰 이름을 드리운 선인들이 모두 쓸모없는 일을 하였단 말이나?”

“㉡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인 것입니다. 도대체 종이에 먹물을 적시는 일에 도가 있은들 무엇이며, 현묘(玄妙)함이 있은들 그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 도로 이름하면 백정이나 도둑에게도 도가 있고, 뜻을 어렵게 꾸미면 장인이나 야공(冶工)의 일에도 현묘함이 있습니다. ㉣ 천고에 드리우는 이름이 있다 하나 이 나[我]가 없는데 문자로 된 나의 껍데기가 날모르는 후인들 사이를 떠돈들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서화가 남겨진다 하나 단단한 비석도 비바람에 깎이는데 하물며 종지와 먹이겠습니까? 거기다가 ㉤ 그것은 살아 그들의 몸을 편안하게 해 주지도 못했고 험벗고 굶주리는 이웃을 도울 수도 없었습니다. ㉥ 그들은 그 허망함과 쓰라림을 감추기 위해 이를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어떤 경지를 설정하여 자기를 위로하고 이웃과 뒷사람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때였다. 고죽은 불의의 통증으로 이마를 감싸 안으며 옆드렸다. 노한 석담 선생이 앞에 놓인 벼루 뚜껑을 집어던진 것이다. 샘솟듯 솟는 피를 흠치고 있는 고죽의 귀에 늙은 스승의 광기 어린 고함 소리가 들려 왔다.

“내 일찍이 네놈의 천골(賤骨)을 알아보았더니라. 가거라. 너는 진작부터 저잣거리에서 나왔어야 할 놈이었다. 용케 천골을 숨기고 오늘날에 이르렀으니 ㉦ 이제 나가면 글씨 한 자에 쌀 뒷박은 후히 받을 게다…….”

결국 그 자리가 그들의 마지막 자리였다. 그 길로 석담 선생의 집을 나선 고죽이 다시 돌아온 것은 이미 스승의 시신이 입관된 뒤였다.

벌써 삼십여 년 전의 일이건만 ㉧ 고죽은 아직도 희미한 아픔을 느끼며 이제는 주름살이 덮여 흉터가 별로 드러나지 않는 왼쪽 이마 어름을 만져 보았다. 그러나 그와 함께 떠오르는 스승의 얼굴은 미움도 두려움도 아닌, 그리움 그것이었다.

“아버님, 김 군이 왔습니다.”

다시 추수의 목소리가 그를 끝 모를 회상에서 깨나게 하였다. 이어 방문이 열리며 초헌(草軒)의 둥글넓적한 얼굴이 나타났다. 대할 때마다 만득자(晩得子)를 대하는 것과 같이 유별난 애정을 느끼게 하는 제자였다. 사람이 무던하다거나 이렇다할 요구 없이 일 년 가까이나 그가 없는 서실을 꾸러 가고 있는 탓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글씨 때문이었다. 붓 쥐는 법도 익히기 전에 행서(行書)를 휘갈기고, 점획 결구(點劃結構)도 모르면서 초서(草書)며 전서(篆書)까지 그려 대는 요즘 젊은이들 답지 않게 초헌은 스스로 정서(正書)로만 삼 년을 채웠다. 또 서력(書歷) 칠 년이라고는 하지만 칠 년을 하루같이 서실에만 붙어 산 그에게는 결코 짧은 것이 아닌데도 그 봄의 고죽 문하생 합동전에는 정서 두어 폭을 수줍게 내놓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 그의 글은 서투른 것 같으면서도 이상한 힘으로 충만돼 있어, 고죽에게는 남모를 감동을 주곤 했다. 젊었을 때는 그토록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윽하게 느껴지는 스승 석담의 서법을 연상케 하는 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 이문열, 「금시조(金翅鳥)」 -

- * 소재: 청나라 학자 옹방강의 호.
- * 금시조: 불경에 나오는 상상의 큰 새.
- * 향상: 상상의 큰 코끼리.

4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1)

- ① 중심인물들이 상대를 공박하며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대화를 통해 인물들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시간의 흐름을 비약시킴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연계하고 있다.
- ④ 사건을 병렬적으로 구성하여 이야기의 입체감을 높이고 있다.
- ⑤ 갈등의 양상을 첨예하게 그림으로써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4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2)

- ① ㉠: ‘석담’의 집착을 못마땅해 하는 ‘고죽’의 심리가 나타나 있다.
- ② ㉡: 예술의 드높은 경지에 대해 회의하는 ‘고죽’을 ‘석담’이 나무라고 있다.
- ③ ㉢: 재주는 많으나 자신의 뜻에 어긋난 ‘고죽’을 ‘석담’이 질책하고 있다.
- ④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어버렸던 ‘석담’에 대한 ‘고죽’의 원망이 되살아나고 있다.
- ⑤ ㉤: ‘초헌’이 훗날 대가로 성장하리라는 ‘고죽’의 예감이 담겨 있다.

43. ㉠~㉡ 중, <보기>를 근거로 비판할 수 있는 것은? 43)

<보 기>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현대 한국 독자들에게 까지 소개되어 널리 읽히고 있다. 셰익스피어는 이 작품을 남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존재로 평가 받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44. 위 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44)

- ① 예술이 갖는 효용성 문제에 대해 논란이 있군.
- ② 예술의 경지를 깨달아 가는 과정이 험난하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군.
- ③ 예술가로서 스승과 제자의 만남과 헤어짐을 작가는 극적으로 그려 내었군.
- ④ 예술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태도에 대해 작가는 잘못되었다고 말하는군.
- ⑤ 예술을 창조하는 이들이 겪는 정신적 고뇌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군.

45. '요즈음 젊은이들'을 두고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5)

- ① 우물에 가 송충 찾는다.
- ② 낮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 ③ 기지도 못하면서 뛰려고 한다.
- ④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 읊는다.
- 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1) 3

사회자의 말하기 방식 파악 답③

[A]에서 사회자는 지금까지 진행된 토론 과정을 정리하고 토론자들에게 앞으로 무엇에 대해 토론해야 하는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B]에서 사회자는 토론자가 발언권을 얻지 않고 중간에 끼어드는 것을 제지하면서 토론의 유의 사항을 인지시키고 있는데, 이를 통해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① [A]에서 사회자가 토론자의 의견 개진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B]에서는 사회자가 토론을 진행할 뿐 직접적으로 토론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② [A]와 [B] 모두 적절하지 않다.

④ [A]에서 사회자가 토론의 범위를 한정해 주는 것은 맞지만, [B]에서 사회자는 토론의 유의 사항을 인지시키고 있을 뿐 토론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지는 않다.

⑤ [B]에서 사회자가 토론자의 발언권을 제한하는 것은 맞지만, [A]에서 사회자는 토론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을 뿐 직접 토론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

2) 5

02 토론의 내용과 태도 평가 답⑤

반대 측은 찬성 측 발언 시간에 끼어들어 사회자로부터 발언을 제지당하였다. 또한 마지막 발언에서도 찬성 측의 이야기를 끊고 대답을 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 토론자의 견해를 끝까지 경청하려는 모습이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① 공공 기관의 역할 미수행이라는 측면과 과태료 부과 기준의 불명확성 등을 근거로 과태료 부과가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② ‘시민 자율 제설 봉사단’이나 ‘제설 작업 구간 책임제’ 등을 운영하는 지자체의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③ 강제성 있는 과태료 부과는 공공 기관의 할 일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면서 벌금까지 물리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자발적인 시민 의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④ 어느 선까지 과태료를 물려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제도적 차원에서 강제적인 과태료 부과를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측면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강제적인 과태료 부과보다 자발적인 시민 의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2

03 화법의 성격 이해 답②

이 대화에서 ㉠은 민철이의 지적에 대해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반응이다. 이는 ‘발을 동동 구르다.’라는 관용구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온 반응이다. 따라서 이를 말하는 이의 전문성이 들은 내용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는 언급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 ‘운동장’, ‘계단’을 지나온 점을 들어 대화를 전개하고 있다.

③ ㉡: 민철이가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데서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④ ㉢: 선생님이 큰 목소리를 냄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의도를 알아차린 데 대한 호응을 나타내고 있다.

⑤ ㉣: 민철이에게 ‘이달의 노력상’을 주겠다는 약속을 한 점에서 일정한 보상을 제시하여 상대방의 실천에 대한 다짐을 유도해 내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4) 5

04 의미의 재구성 이해 답⑤

이 대화에서 민철이는 선생님이 ‘좋은 방법이기도 한데…….’라는 말과 관련해 ㉠와 같이 말하고 있다. 앞서 선생님의 의도는 민철이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일찍 일어나는 것도 좋지만 민철이의 대답처럼 스스로 일어나는 노력을 해 보라는 것이다.

① 선생님이 민철이에게 지각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요구하는 태도는 살펴볼 수 없다.

② 선생님은 민철이와 그 어머니가 사이 좋게 지낼 방법을 생각해 보라는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③ 선생님은 민철이에게 한 달 동안만이라도 지각하지 않을 방법을 모색하라는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④ 선생님이 민철이에게 버스 노선에 관한 정보를 더 정확히 알고 있으라고 언급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5) 1

05 발표 내용에 대한 평가 답①

<보기>에서 언급된 청자의 입장을 고려해 보았을 때, 역사와 갈대의 사진 등 시각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② ‘학생 1’과 ‘학생 2’ 모두 발표 내용을 잘 들었다. 이들에게 문제는 역사와 갈대를 실제로 보았을 때 구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표 내용을 요약·정리한 유인물을 사전에 제공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학생 1’과 ‘학생 2’는 말만 듣고 역사와 갈대를 실제로 잘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과 역사와 갈대의 생김새를 잘 모른다는 것을 문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한다는 해결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④ ‘학생 1’과 ‘학생 2’는 발표가 흥미롭고 재미있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도입부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이야기를 삽입하라고 조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발표자의 발표 내용 중 전문가의 견해가 언급되어 있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견해가 필요하다는 반응은 없으므로 전문가의 견해를 추가적으로 제시할 필요는 없다.

6) 5

06 조건에 따른 글쓰기의 적절성 평가 답⑤

정부의 긴급 조정권 발동이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하고는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처럼 노사 간의 자율적 합의에만 기대고 있을 뿐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해결책이 없으므로 그에 따른 기대 효과도 있을 수가 없다.

①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한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적절하지 못한 선택이었음을 처음부터 지적하고 있다.

② 사설에서 주장한 의견들이 구체적이지 않고 정부가 파업의 심각성을 부각하기 위해 경제적 피해를 과장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③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다.’라는 관용적 표현과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높

이고 있다.

④ 사실에서는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파업을 하고 있는 조종사들이 파업을 철회하기를 바라는 방향으로 논점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조종사들이 주된 설득 대상으로 설정될 수 있다. 하지만 재작성한 글에서는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타협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입하여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관계자를 주된 설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7) 2

07 매체 언어의 기능과 효과 파악 답②

신문 사설도 매체 언어의 하나이고 신문 매체를 선택하는 구독자들의 성향에 따라 신문사마다 나름대로의 논리를 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선생님은 이러한 신문사의 편향된 시각을 학생들이 잘 가려낼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런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설을 읽는 학생들은 사설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글쓴이에 따라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① 공신력 있는 신문사의 사설이라도 결국 신문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사실이 사실에 근거했다 하더라도 사건의 심각성을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글쓴이의 의견에 초점을 맞추어 읽는 것뿐 아니라 사건의 사실 관계 유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사실은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회적 사건에 관해서 신문사의 의견이나 주장을 밝힌 글이다. 따라서 사실을 누가 썼는지 확인하는 것보다 의견이나 주장을 비판적으로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⑤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취사선택하거나 자신의 관점에 부합하는 의견만을 제시하는 신문을 읽는 것은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 사건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다양한 신문을 읽고 관점의 차이를 파악한 후 자신의 관점을 정립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8) 4

08 작문의 표현 전략 파악 답④

④는 예상 독자를 젊은 사람으로 하고 있으며 젊은 사람들을 계도하기 위한 칼럼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노약자석을 ‘바늘방석’에 비유하여 그곳에 앉지 말고 편한 마음으로 서서 가자고 청유형을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① 예상 독자를 젊은 사람들로 하고 노약자 석에 앉은 젊은 사람들을 계도하기 위한 칼럼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노인’이라고 하여 비유를 활용하고 있으나 청유형의 문장이 아니다.

② ‘양보’는 ‘사랑’이라고 하여 비유를 활용하고 ‘~합시다.’라는 청유형의 문장이기는 하지만 예상 독자가 젊은 사람이 아니며 젊은 사람을 계도하기 위한 칼럼의 취지를 반영하지 않았다.

③ 예상 독자를 젊은 사람으로 하여 칼럼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으나 비유와 청유형을 활용하지 않았다.

⑤ ‘나이’는 ‘숫자’라고 하는 비유를 사용하고 있으나 예상 독자가 노인으로 되어 있으며 칼럼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지 않고 청유형

이 아닌 명령형의 문장을 활용했다.

9) 5

09 고쳐쓰기의 원리 파악 답⑤

㉠의 ‘오히려’는 ‘일반적인 기준이나 예상, 짐작, 기대와는 전혀 반대가 되거나 다르게’의 의미로 쓰는 부사어이고 ‘하지만’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상반되는 사실을 나타내는 두 문장을 이어 줄 때 쓰는 접속 부사이다. ㉠에는 앞의 내용을 종합하여 결론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이처럼’이 적절하다.

① 화장실에 방향제를 놓는 것은 마련하여 갖추어 둔다는 의미를 지닌 ‘비치’가 어울린다. ‘배치’는 사람이나 물자 따위를 일정한 자리에 알맞게 나누어 둔다는 의미나 여러 개의 물건을 일정한 차례나 간격에 따라 벌여 놓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② 사람들이 나쁘다고 여기는 냄새를 없앤다는 의미가 드러나야 하므로 ‘냄새는 없애 버리고’가 자연스럽다.

③ ㉡의 ‘생활필수품’에는 앞말이 제한된 범위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인 ‘에’를 써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그러한 기능으로 쓰이는 경우가 없으므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④ 사람들이 인공의 향에 길들여져 후각을 잃어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는 글에서 ‘직장’에 대한 언급은 글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

10) 5

10 글쓰기 전략의 이해 답⑤

행사가 있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제시하는 전략은 사용되지 않았다.

① 2문단에서 ‘이 행사는 저희들 스스로 새로운 청소년 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소중한 행사’라고 하면서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 또한 ‘자신의 가치를 발견’, ‘세대를 초월하는 공감’을 언급하면서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② 청소년뿐만 아니라 행사를 준비한 분들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에 맞게 높임법을 사용하고 있다.

③ 1문단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

④ 학생 연합 축제에 참가하는 청소년들 각각의 가치와 모습 등을 꽃의 색깔과 향기에 비유하고 있다.

11) 4

11 부사의 의미 이해 답④

<보기>는 부사 중에서 특정한 의미를 강조하는 단어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정도’의 의미를 담은 단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④에서 ‘막’은 ‘바로 그때’의 의미를 강조하는 단어로서 <보기>의 ㉠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① ‘꽤’는 ‘보통보다 조금 더한 정도로’의 뜻이다.

② ‘다’는 ‘행동이나 상태의 정도가 한도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③ ‘덜’은 ‘어떤 기준이나 정도가 약하게. 또는 그 이하로’의 뜻이다.

⑤ ‘꽤’는 ‘보통 정도를 훨씬 넘게’의 뜻이다.

12) 5

12 형태소의 개념과 특성 파악 답⑤

‘하나’는 ‘전혀’, ‘조금도’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명사이므로 자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이’는 주격 조사로 명사나 대명사, 수사 등과 결합하여야만 쓰일 수 있다.	20) 2
②‘자라-’는 용언의 어간으로 어미와 결합하여야만 쓰일 수 있다.	21) 1
③‘-는’은 관형사형 어미로 용언의 어간과 결합하여야만 쓰일 수 있다.	22) 4
④‘새-’는 접두사로 색채를 나타내는 일부 형용사와 결합하여야만 쓰일 수 있다.	23) 2
	24) 2
	25) 4
13) 2	26) 2
13 음운의 변동에 대한 이해와 적용 답②	
‘날날이’에서 첫 글자인‘날’이[날]’으로 발음된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해당한다. 또한[날 : 날이]가 [날 : 나치]가 된 것은 구개음화에 해당한다. 그리고[날 : 나치]가[날 : 나치]로 된 것은 ‘ㄷ’이‘ㄴ’과 만나‘ㄴ’으로 동화된 것이므로 비음화에 해당한다.	27) 1
	28) 2
	29) 1
14) 3	30) 5
14 학술 언어의 표현상 특징 파악 답③	
마지막 문장의‘그런데’라는 접속 표현은 전체적인 문맥상 어울리지 않아 글의 응집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런데’는 화제의 전환시에 사용되는 접속 표현이다. 바로 앞에 서 연구 윤리에 대한 교육이 단기간에 성과를 보이기 힘들다고 하였으므로, 뒤에 이어지는 문장에서는‘그렇지만’,‘하지만’과 같은 접속 표현이 와야 한다.	31) 2
	32) 2
	33) 4
① <보기>에 제시된 글은 모두‘연구 윤리에 대한 교육’을 다루고 있어, 주제와 무관한 내용은 없다.	34) 5
②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35) 2
④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다루고 있지 않다.	36) 5
⑤ <보기>의 글은 결론 부분으로서 필자의 핵심적인 주장이 요약·정리되어 있다. 타인의 견해를 인용한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37) 1
	38) 2
15) 4	39) 2
15 문장 성분 분석의 적절성 파악 답④	
ㄷ은‘독립어, 주어, 부사어, 서술어’로 구성된 문장으로 주성분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을 2개(주어, 서술어) 갖고 있다. ㄹ은‘주어, 관형어, 목적어, 서술어’로 구성된 문장으로 주성분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을 3개(주어, 목적어, 서술어) 갖고 있다.	40) 3
	41) 4
	42) 4
① ㄱ은‘주어, 서술어’, ㄴ은‘주어, 보어, 서술어’의 주성분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43) 3
② ㄷ은‘아야’라는 독립어(감탄사)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다.	44) 4
③ ㄹ은‘자동차를’, ㅁ은‘밤을’이라는 목적어를 주성분으로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다.	45) 3
⑤ ㄷ은 부속 성분으로 부사어인‘너무’를, ㄹ은 부속 성분으로 관형어인‘새’를 포함하고 있다. ㅁ은 부속 성분으로 부사어‘재빨리’, 관형어‘설익은’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16) 3	
17) 4	
18) 4	
19) 3	